

##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수준 법인세·소득세 인하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와 버니 샌더스의 반격

- 美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샌더스의 SNS 활동을 중심으로 -

고 광 용 (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)

### ▶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수준 법인세·소득세 인하

\*다음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(2017)의 「주요국의 조세·재정동향」을 참고함.

-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27일 미 하원 세입·세출위원회,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최종 협의한 세법개정안(Unified Framework Fixing Our Broken Tax Code)을 발표하였음. 세법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중산층 및 소규모 사업자 세부담 경감, 세법규정 및 세무신고절차 단순화, 미국 내 일자리, 투자, 세수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함
- 그 중 핵심 사항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임
- 우선 소득세율은 현행 10~39.6%의 7단계 구조에서 12%, 25%, 35%의 3단계 구조로 개정하고, 특히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음. 다만, 각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제시하지 않음
- 둘째,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%에서 20%로 15%p 인하할 것을 제안함. 당초 2017년 4월 발표 세법개정안에는 15% 인하를 제안했으나 20%로 인상한 세율을 발표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. 미 하원은 재정적자 이유로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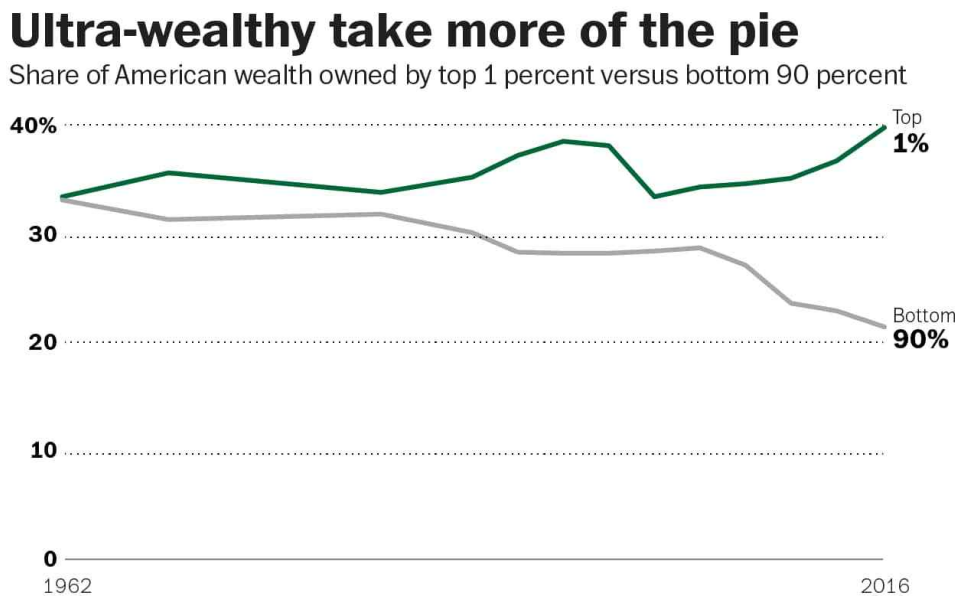
▶ 美 워싱턴 포스트 크리스토퍼 인그래햄(Christopher Ingraham)의 기획기사:  
 현재 최상위 1% 부자들이 지난 50년 간 어느 때보다 국가의 부 더 많이 차지!

\*The Washington Post(Democracy Dies in Darkness) Wonkblog·Analysis “The richest 1 percent now owns more of the country’s wealth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50 years” December 6.

○ 지난 50년 최상위 1% 부자들의 부의 집중 변화

- 미국인 가정의 최고 1% 부자들은 경제학자 Edward N. Wolff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국가 부의 40%를 차지함. 그 비중은 연방소비자금융조사(Federal Survey Consumer Finances)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Wolff에 따르면, 1962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임
- 2013년부터 최고 1% 부자들의 부의 비중이 거의 3%p 증가했음. 한편 하위 90%가 차지하고 있는 부는 같은 기간 급격히 떨어졌음. 최고 부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차이는 지난 여러 기간 동안 오직 넓어져 왔음

<그림> 1% 최부유층의 부(파이)의 집중 변화(1962~2016)



WAPO.ST/WONKBLO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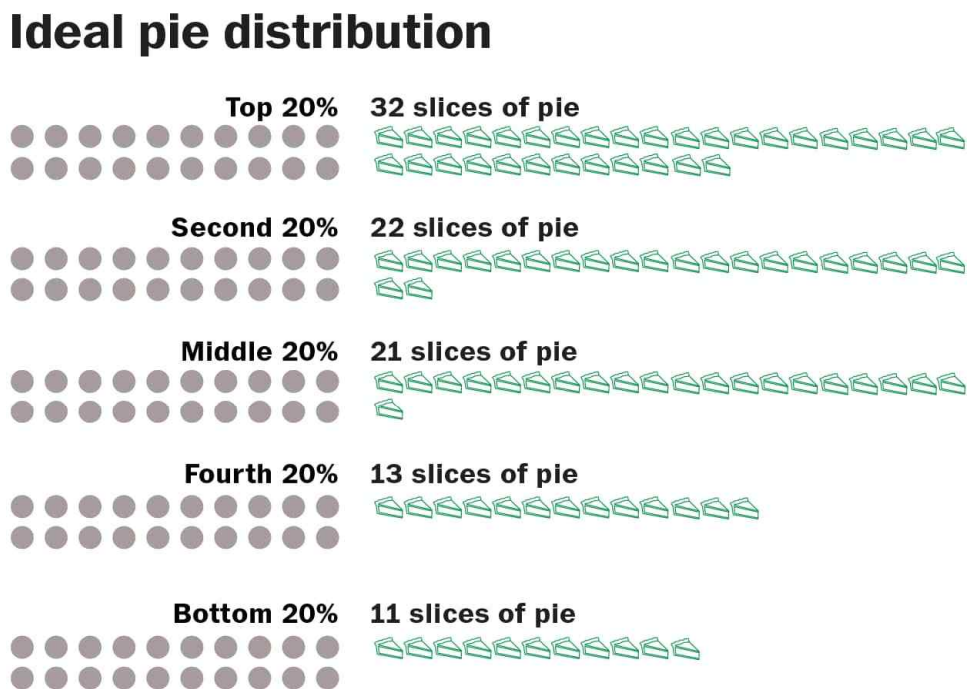
Source: Edward N. Wolff

자료: 워싱턴 포스트 2017년 12월 6일자 기사

○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 배분

- 부의 격차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면, 순자산(net worth)으로 설명되는 부는 종종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가로 설명됨. 부란, 당신이 가진 자산에서 채무(빚)를 뺀 것인데, 만약 당신이 25만 달러 집을 갖고 있지만, 은행에 20만 달러를 대출했다면, 당신의 순자산은 5만 달러 뿐임
- 미국에서, 부의 분배는 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최상위그룹에 집중되어 있음. 미국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, 부(파이)의 100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음. 2010년, Michael Norton과 Dan Ariely는 5,500명 이상에 설문조사를 거쳐 20% 부의 구간별 부의 이상적인 배분 상태를 다음 그림과 같이 분석함. 최상위 20%는 부의 32%, 차상위 20%는 부의 22%, 중위 20%는 부의 21%, 중하위 20%는 부의 13%, 최하위 20%는 부의 11% 순임

<그림>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의 이상적 배분



WAPO.ST/WONKBLOG  
Pie icon by Theresa Berens, the Noun Project

Source: Norton & Arie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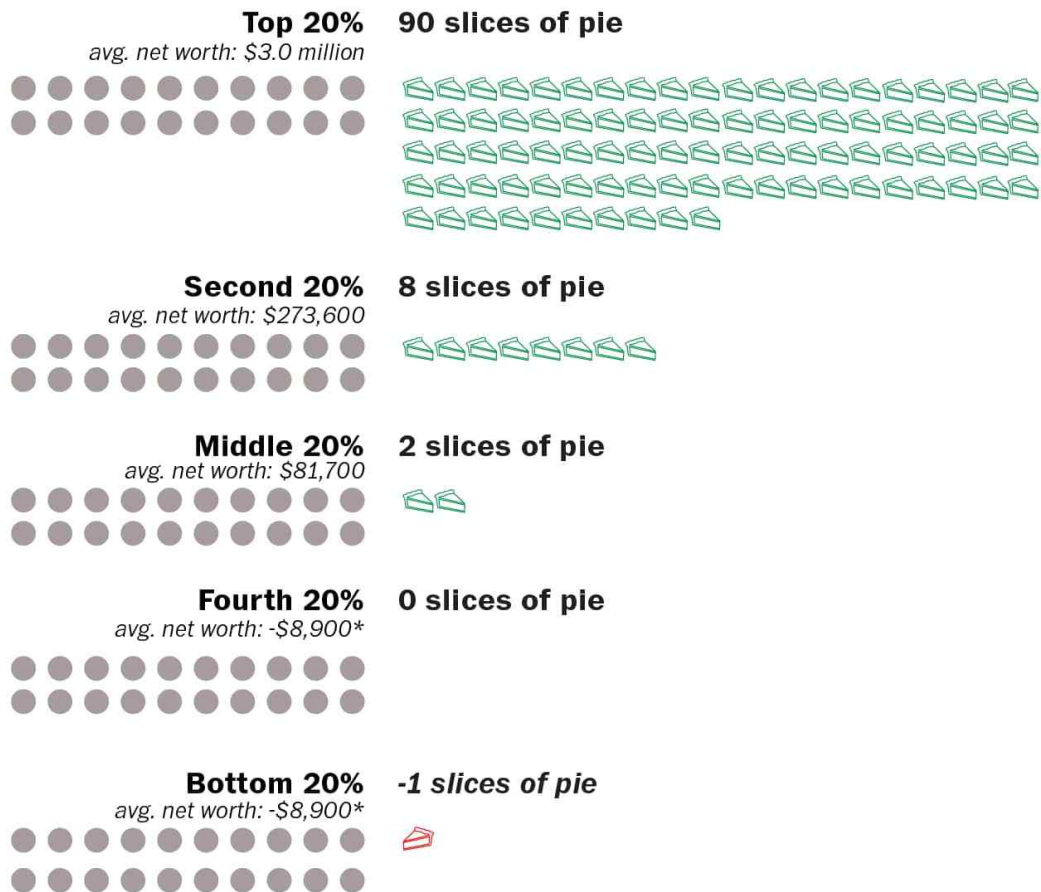
자료: 워싱턴 포스트 2017년 12월 6일자 기사

○ 실제 미국들의 부의 배분 상태

- Wolff의 연구에 따르면, 실제 미국인들의 부의 배분은 다음 그림과 같음. 최상위 20%(평균 순자산 300만 달러)는 부의 90% 차지하는 반면, 차상위 20%(평균 순자산 27만 3,600달러)는 부의 8%, 중위 20%(평균 순자산 8만 1,700달러)는 부의 2%, 중하위 20%(평균 순자산 8,900달러) 부의 0%, 최하위 20%(평균 순자산 -8,900달러)는 부의 -1%를 차지하고 있음

<그림> 실제 미국인들의 부의 배분

## Actual pie distribution



WAPO.ST/**WONKBLOG**

Source: Edward N. Wolff

Pie icon by Theresa Berens, the Noun Projec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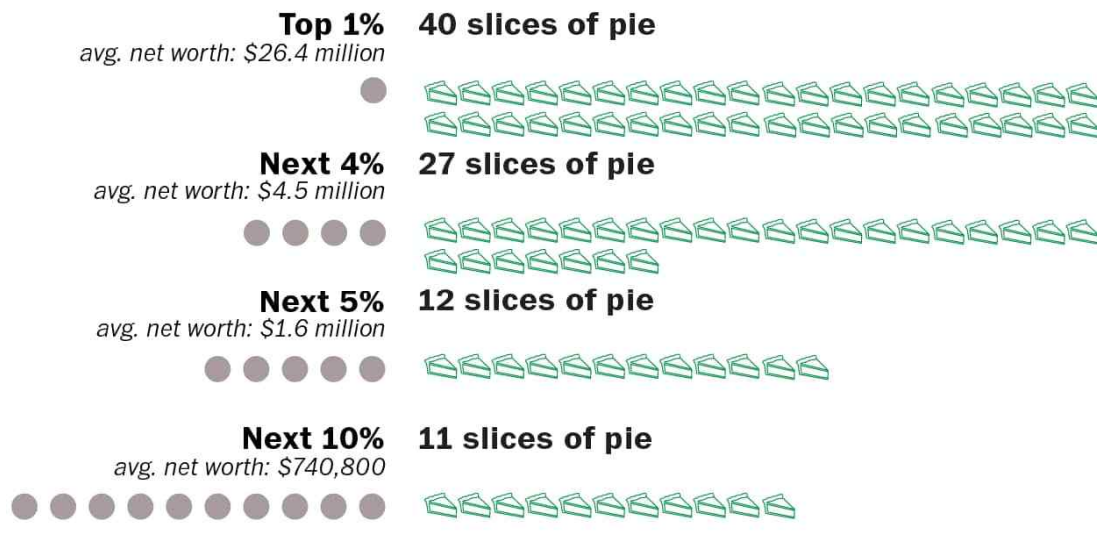
Note: Average net worth figure for fourth and bottom 20% categories are for the entire bottom 40%

자료: 워싱턴 포스트 2017년 12월 6일자 기사

- 최상위 20% 부유층들의 실제 부의 배분을 더 쪼개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.  
최상위 1%(평균 순자산 2,640만 달러)는 부의 40%, 다음 4%(2~5%, 평균 순자산 450만 달러)는 부의 27%, 다음 5%(6%~10%, 평균 순자산 160만 달러)는 부의 12%, 다음 10%(11%~20%, 평균 순자산 74만 800달러)는 부의 11%를 차지함
- 최상위 1%가 미국 부 전체의 40%를 차지하며, 상당한 부의 집중을 보여줌

<그림> 실제 미국인들의 최상위 20% 부유층의 부의 배분

## Actual pie distribution



WAPO.ST/**WONKBLOG**

Source: Edward N. Wolf

Pie icon by Theresa Berens, the Noun Project

Note: Average net worth figure for fourth and bottom 20% categories are for the entire bottom 40%

자료: 워싱턴 포스트 2017년 12월 6일자 기사

○ 국가별 최상위 1% 부유층 부의 집중 비교: 미국 40% 1위

- 최상위 1% 부유층의 국가별 부의 집중을 비교하면, 미국이 40%로 가장 높은 반면, 독일 25%, 프랑스·영국 18% , 캐나다 16%, 핀란드 12% 순으로 나타남
- 미국은 극도의 불평등을 보이며 경제 상태가 대단히 나쁨. OECD는 미국이 2000년~2015년 사이에 각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거의 5%p 떨어졌다고 예측함
- 높은 불평등 국가들의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양질의 교육에 대

한 접근 기회가 없음. 이는 대규모의 낭비되는 잠재성과 낮은 사회적 유동성 (social mobility)을 이끔. 이러한 요인들은 OECD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침

<그림> 국가별 최상위 1% 부의 집중

## Pie around the world



WAPO.ST/WONKBLOG  
Pie icon by Theresa Berens, the Noun Project

Source: OECD

자료: 워싱턴 포스트 2017년 12월 6일자 기사

-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세금 인하에 대한 비판
  - 만약 당신이 미국이 가진 극도의 부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 제도를 설계한다면, 당신은 아마도 가장 부유한 가정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을 찾을 것임
  - 그러나, 미국 상원의 공화당(GOP)의 세금 인하 계획은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. 짧은 기간에 가장 부유한 가정의 최고 세율을 깎아주면 줄수록 실제 가장 가난한 가정의 세금은 장시간 점점 더 증가할 것임
  - 재산세(estate tax)요? 깎네요;;,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율요? 깎네요;;(적어도 상원 법안에서). 법인세율요? 엄청나게 세율을 깎아주네요;;

▶ 버니 샌더스의 SNS 활동: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·소득세 인하 반격

-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세금 인하안에 대한 3번에 걸쳐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림. 다음에서 3가지 글과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함

○ 첫 번째 페이스북 글

- 미국 가정의 가장 부유한 1%가 차지한 국가의 부가 40%인 거대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시대에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최상위 1%와 돈 잘버는 대기업들을 위해 1조 달러가 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결정했음. 이는 대단히 나쁜 경제정책이자 도덕적으로 터무니없고 가당찮은 일임
- 우리는 이러한 재난에 가까운 세계 개편안을 쳐부수고(무산시키고),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

○ 두 번째 페이스북 글

- 만약 이 세계 개혁안이 통과되면, 공화당 지도부가 더욱 공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가족들, 노인과 어린이, 병들고 가난하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, 건강보험, 교육, 영양, 환경보호와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을 깎을 것임
- 이는 미스터리가 아님. 공화당은 이미 그들이 하려는 계획을 인정하고 있음
- 우리가 해야할 일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화당이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이 세법 개정안을 중지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

○ 세 번째 페이스북 글

- 트럼프 대통령은 세법 안이 그로 하여금 엄청난 돈이 들 거라고 말함.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임. 사실,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세계 개편안 아래에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임. 이 법안은 미국 중산층들의 세금을 올리면서 트럼프처럼 부유한 사람과 법인 기업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임.



<그림> 버니 샌더스의 페이스북 글

①

②

③

